

왼쪽부터 동화사 지우 스님, 불국사 현법 스님, 고운사 도륜 스님, 직능대표 사회분야 도심 스님.

16대 종회 보궐 끝… 78석으로 늘어

동화사 지우 · 불국사 현법 · 고운사 도륜 스님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9교구 동화사 지우 스님, 제11교구 불국사 현법 스님, 제16교구 고운사 도륜 스님이 8월 30일 당선됐다. 또한 앞서 27일 직능대표 사회분야에 도심 스님이 선출되면서 중앙종회는 78석으로 늘어났다. 총무부장과 사서실장으로 임명된 성문 스님과 정범 스님은 보궐선거공고 이후 사직해 후임이 선출되지 않았으며, 월정사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지우 스님은 진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종책특보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관오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현법 스님은 이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법주사에서 수계했다. 법주사 교구종회 부의장, 개태사 주지, 제13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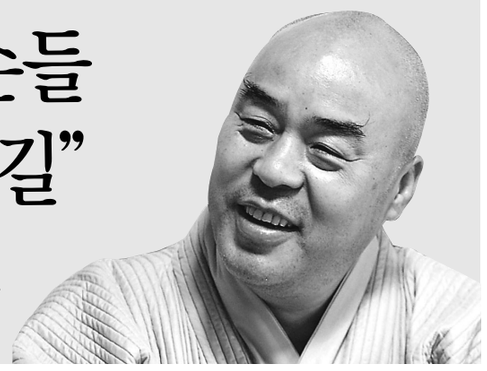
도륜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장, 영주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와 서악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직능대표 사회분야 도심 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수계했다. 총무원 조사국장과 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강제징용 희생자후손들 민족 정체성 잊지 않길”

Interview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무원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3년 만에 건립 “뜻 깊은 일”
후손 봉사자 모집 · 운영 등
한 민족 역사교육 계기 기대

“부산우리민족 각 대표 · 회원들이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들을 알리고 기리는 일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추모관이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희생자 후손들 가운데 청소년 ·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추모관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후손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로 강제 징용돼 귀국하지 못하고, 무덤마저 방치된 무연고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관이 3년 만에 완공됐다. (사)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부산우리민족)은 8월 30일 사할린 소재 추모관서 ‘일제강점기 사할린 징용 한인 희생자 추모관’을 준공했다. 부산우리민족 상임대표 무원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은 완공 기념식을 앞둔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과거 일본 식민지였던 남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간 조선인 대부분은 미혼 남성들로, 4만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광복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소련으로 바뀐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귀국을 꿈꾸며 결혼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생을 마감한 무연고자는 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무덤은 광복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과 공동묘역 등에 방치됐다.

부산우리민족은 무연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5년 8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모역 내 합동추모비를 세워 해마다 사할린 교포와 함께 추념식을 치러왔다. 이후 추진된 현지 추모관 건립 과정서 부산우리민족 공동대표인 현덕수 사할린 한국한인회 회장의 제안은 결정적이었다.

“현덕수 회장이 먼 타국서 건축업으로 번 돈과 농장 부지를 불사에 보태라 선뜻 내준 덕분에 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언급할 수 없을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동기금운동을 해준 한겨레신문과 홍보대사 역할을 해준 조정래 작가 등 위패를 모실 수 있게 도와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순탄할 것만 같던 추모관 건립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겪어야 했다. 무원 스님에 따르면 사할린 무연고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조상을 예경하고 추모하는 문화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립에 대한 역사인식 교육도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모제 등을 처음 접했을 때 경계적 태도를 취하는 유가족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던 중 현 회장이 동참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정서와 사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공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위패 7800여 기가 모셔질 공간을 비롯해 역사자료관과 게스트하우스까지 많은 정성을 들였으니 부디 희생자들이 이곳에서 안식하길 바랍니다.”

“가르침 따라 국민에 봉사”

공무원불자연합회, 8월 25~26일 수련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감사위원)는 8월 25~26일 장성 백양사에서 ‘2018년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법회에는 기관 불자회 회원과 가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서는 광주광역시청불자회장의 사회로 김상규 공불련 회장의 인사말, 김영권 장성 부군수의 환영사,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법문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해외입양인 템플스테이

친부모 찾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방한



해외로 입양된 한인들이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사)해외입양연대(G.O.A. ‘L)는 해외 한인 입양인을 초청해 8월 25~26일 경주 불국사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해외입양인 16명이 참가했다. 템플스테이는 모국 방문 및 친부모 찾기 프로그램인 ‘2018 First Trip Home, 고향으로의 첫 여행’의 일환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지원 기자

법주사, 청주지법과 청소년 선도

보호소년 및 위기가족 템플스테이 지원 협약



법주사 스님들과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들이 보호소년과 위기가족 템플스테이 MOU를 맺고, 청소년 선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충북 보은 법주사가 지방법원과 함께 청소년 선도에 나선다.

법주사(주지 정도)와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은 8월 28일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을 돕기 위해 법주사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가족 갈등 치유, 가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홍보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아동치료 보호시설에 위탁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심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법주사와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나선 점에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대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교사 40명을 법주사로 초청,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동창회, 경주캠에 장학금

장학생 17명에게 총 3400만원 수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는 8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2018학년도 2학기 동국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7명에게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 **동국대 법인 초 · 중 · 고교 교원 교장 및 교감**

△김형중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고 교장
△박현숙 동국대사범대학부속영석고 교장
△전정란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교장
△이영숙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 교장
△허백무 동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감
△박규태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 교감직무대리
△김웅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고 교감직무대리
△박현정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교감직무대리
이상 9월 1일자

이지수 前 동국대 인철과 교수 별세



이지수 前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사진〉가 8월 26일 오전 2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이지수 前 교수는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인도 푸나대학에서 철학과 범어를 공부했다. 1985년 진주 국립경상대 철학과 교수로 초빙됐으며, 1987년부터 모교인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4년 정년퇴임했다.

주요논문으로 ‘인명입정리론의 변증법적 방법’ ‘세친의 삼성론에 대하여’ 등이 있으며, 역 · 저서로는 〈원시불교와 부파불교〉, 〈인도철학〉, 〈바가바드기타〉, 〈산스끄리뜨의 기초와 실천〉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2018년 불교학과 5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6일(목) 오후 1시 개강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통신반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① 근본불교 (아함경 2) ② 반야심경 ③ 유식불교 ④ 인도불교, ⑤ 중국·한국불교 ⑥ 법화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최종남 교수, 정병조 교수,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박종 교수
2년차	과목	⑦ 화엄경 ⑧ 정토불교 ⑨ 대승불교와 밀교 ⑩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⑪ 불교문화와 미술, ⑫ 선불교
	교수진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주명철 교수, 정성준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 교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저녁반·통신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9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반 [9월 5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반 [9월 8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